

아테나에 대한 아라크네의 도전

- 김상배,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한울아카데미, 2014)

허재철*

1. 네트워크 이론과의 만남

몇 년 전, 필자는 연구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네트워크 이론에 관한 논문을 읽게 됐다. 부끄럽지만 필자는 그 이전까지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 가끔 들어보는 정도였고, 게다가 별다른 관심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의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네트워크 이론으로 접근하려 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읽게 되면서, 네트워크 이론에 ‘꽃히게’ 됐다. 그 후로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고, 초보적이거나 이 이론을 이용해 몇몇 소논문을 써 오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필자의 전공이면서 관심 영역인 동북아 지역연구를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시도하려고 노력 중이다.

네트워크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그 동안 읽었던 자료들은 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에 관한 국내외 도서와 이를 활용한 소논문이 많았다. 적지 않은 이들 자료를 통해 네트워크

*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JSPS 외국인특별연구원

이론의 내용과 발전 과정,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적용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 학계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면서 필자도 더 분발해야겠다는 자극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이론 관련 자료들을 보면, 네트워크 이론 중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이론서나 이를 활용한 소논문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Ucinet〉나 〈NetMiner〉 등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적인 지침서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네트워크 이론 전체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필자의 전공이 국제정치학인 관계로 네트워크 이론이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지만, 이에 대해 속 시원히 설명해 주는 이론서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김상배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이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ocial Science Korea: SSK)을 통해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라는 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그 연구 성과물들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필자는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본 서평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은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네트워크 이론을 논하고 있는 국내 연구의 대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이 자리에서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게다가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가 발간하고 있는 본 학술지의 제목도 『중국지식네트워크』인 만큼 그 취지와 부합하는 서적이 아닐까 생각된다.

2. 왜 아라크네인가?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이라는 책 제목에서부터 고개를 갸웃거리는 독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스 신화에 관심이 적은 독자라면 더욱 그럴 텐데, 이 때문인지 저자인 김상배 교수는 책의 서두에서 특별히 아라크네를 책 제목에 넣은 이유에 대해 친절히 설명을 하고 있다.

아라크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미 여인’을 말하는데, 직물 짜기로 유명한 리디아의 젊은 여인이었다. 그 솜씨가 너무도 뛰어나서 직물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테나(로마 신화의 미네르바)에게서 직접 배웠느냐는 찬사를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라크네는 이러한 말에 화를 내며 자신의 솜씨는 스스로 터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테나보다도 뛰어나다고 뽐을 냈고, 이에 화가 난 아테나 사이에 직물 짜기의 경합으로 일이 커졌다. 결국, 시합 과정에서 신을 모독하는 내용을 수놓은 아라크네의 오만은 아테나의 노여움을 샀고, 아라크네는 아테나에 의해 거미가 되어 평생 실을 짜며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아라크네의 이야기는 신에게 도전하는 인간의 무모함과 어리석은 자만심을 꾸짖는 교훈을 담고 있지만, 저자인 김상배 교수는 이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며 본 책의 제목으로 활용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는 지혜와 기능의 여신인 동시에 전쟁의 여신인데, 언제나 투구와 갑옷을 입고,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든 무장한 여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아테나를 전쟁과 지혜, 무기의 만남을 상징한다고 보고, 이를 군사력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근대 국제정치에 비유했다. 이에 비해 아라크네는 근대 국제정치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비유하고 있다. 특히 뛰어난 직물 짜기 솜씨를 가지

고 있던 거미 여인 아라크네를 통해 21세기 세계정치의 중요한 특징인 ‘네트워크’를 끌어 들였다. 아라크네의 이미지가 국민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의 권위에 대한 초국적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도전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즉, 저자는 책의 제목에 아라크네를 넣음으로써 근대 국제정치의 발상을 넘어서려는 탈근대 세계정치의 문제 제기를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 단위의 군사 안보와 국민 경제의 문제에만 시각을 고정해서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복합적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음을 아라크네의 이미지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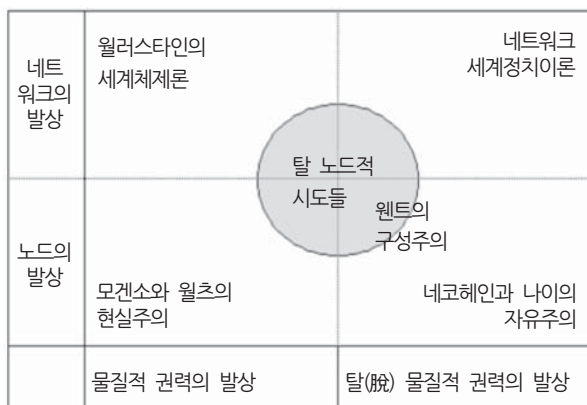
아라크네와 함께 책 제목에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국제정치’와 ‘세계정치’이다. 얼핏 보면 비슷한 개념 같지만, 본 책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정치(國際政治, international politics)는 말 그대로 국민국가 간의 정치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국제정치를 상징하는 반면, 세계정치(世界政治, world politics)는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도 참여해서 벌이는 복합적 권력 정치를 의미한다. 즉, 국제정치는 근대를, 세계정치는 탈근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네트워크 이론은 근대 국제정치의 한계를 뛰어 넘어 탈근대 세계정치의 오늘날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네트워크의 부상과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한계

이 책은 네트워크의 부상으로 파악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 이론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저자는 1970~1980년대부터 국제정치학계에서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오랫동안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분석한다. 그런데도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은 최근 벌여

지는 세계정치의 변화를 포착해 이론화하는 데에는 매우 더디게 반응한다는 것이 이 책의 인식이다. 변화의 현실은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했다고 소란스러운데, 국제정치이론은 여전히 노드(node) 차원의 발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경직성은 현대 국제정치이론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 모두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이 책은 지적한다. 특히, 변화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의 빈곤이 발생한 것은 이들 이론이 공통적으로 근대국민국가라는 노드 행위자에 기반을 둔 이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림 1〉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구도



〈출처: 김상배,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서울: 한울, p. 31〉

이 책에서는 중요한 도표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을 기존의 국제정치이론과 비교하기 위해 제시된 〈그림 1〉이 그것이다. 이 도표는 저자의 다른 연구물에서도 사용된 바 있는데,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을 네트워크 발상과 노드의 발상, 그리고 물질적

권력의 발상과 탈(脫)물질적 권력의 발상으로 나누어 구분 짓고 있다. 이 책에서 이 도표가 다시 등장한 것은 그 만큼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이론적 위치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서평에서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해 본다.

이 도표를 통해 저자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전형적으로 노드의 발상에 기반을 둔 이론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실주의 이론이 부국강병을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력과 경제력과 같은 물질적 권력을 추구하는 국민국가 간의 관계를 주로 탐구하고 있다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또한, 로버트 코헤인(Robert Keohane)과 조지프 나이(Joseph Nye)의 복합 상호 의존(complex interdependence) 등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도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선구적인 시도이기는 하지만, 역시 노드의 발상에 머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네트워크 이론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과 대비되는 네트워크 발상, 탈(脫)물질적 권력의 발상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한편, 이 책이 갖는 또 다른 의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시도를 펼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이론 모색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책의 작업이 추구하는 바는 동아시아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특수 이론이자 동시에 보편 이론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이론화 작업이다. 다시 말해,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인식론으로 동아시아 세계정치의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인식론으로 동아시아의 존재론을 인식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한 사례로서 소개하고 있는 개별

사안들도 동아시아 지역의 문제에 무게를 두어 분석하고 있다.

4. 책의 구성

이 책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을 크게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네트워크의 이론과 원용’,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골격 제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경험적 적용’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1부 “네트워크의 국제정치학적 원용”에서는 이 책에서 원용하고자 하는 기존 네트워크 이론들의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이론이 제시하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국제정치학의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펼쳤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단순 프레임 넘어서는 새로운 복합 프레임을 마련하고, 이를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경험적 논의의 플랫폼으로 삼고자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논의가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논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 책의 논의는 여전히 ‘권력’과 ‘국가’,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이해되는 ‘질서’라는 현실주의의 단골 개념을 논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현실주의 시각에서 보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에서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뼈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 논제들을 발전시키려는 이론적 시도들을 담았다. 변환론, 권력론, 국가론, 질서론, 전략론 등의 다섯 가지 논제로 크게 나누어지는 각 장의 구성은 기존의 유사 개념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에서 새로이 제시하는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을 개발하고자 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의 중요한 3가지 개념인 네트워크 권력과 네트워크 국가 및 네트워크 질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시각에서 본 권력론은 자원, 행위자 차원과 더불어 관계적 맥락과 구조적 차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 집합 권력, 위치 권력, 설계 권력으로 개념화된 네트워크 권력이다. 한편, 네트워크 국가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집합체인 동시에 정부 간에 구성하는 국제적 네트워크, 지역 통합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초국적 정부 협력체, 더 나아가서는 국제기구의 변화나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색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는 복합적 개념이다. 그리고 21세기 세계질서의 모습은 기존 무정부 질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위계질서와 무정부 질서의 중간 질서로서의 네트워크 질서 또는 망중망(網重網) 질서의 모습으로 그려진다고 말한다.

제3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적용”에서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제시된 개념과 이론을 21세기 세계정치 변환의 사례들에 적용했다. 이 책에서 선정한 다섯 가지 사례는 글로벌 패권 경쟁, 외교 분야의 변화, 사이버 안보의 문제, 글로벌 문화 산업의 변화, 사이버공간의 지식질서 등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인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을 찾아서”에서는 이 책에서 펼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에 대한 주장을 종합 및 요약하고 그 의미를 지적하는 동시에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이 보편 이론으로서의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을 넘어 동아시아 이론으로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가능성을 탐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네트워크 권력, 네트워크 국가, 네트워크 질서의 세 가지 가정이 글로벌

차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응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저자는 이러한 이론 작업의 정교화와 함께 향후 이 책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경험 연구가 많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끝을 맺고 있다.

5. 동아시아에서의 네트워크 이론 관련 연구

이 책이 가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아시아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특수 이론이자 동시에 보편 이론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이론화 작업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서구 학계의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현실에 맞는 이론화 작업을 전개했다. 독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통해 서구 학계 및 국내의 국제정치학 영역에서 네트워크 이론과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이해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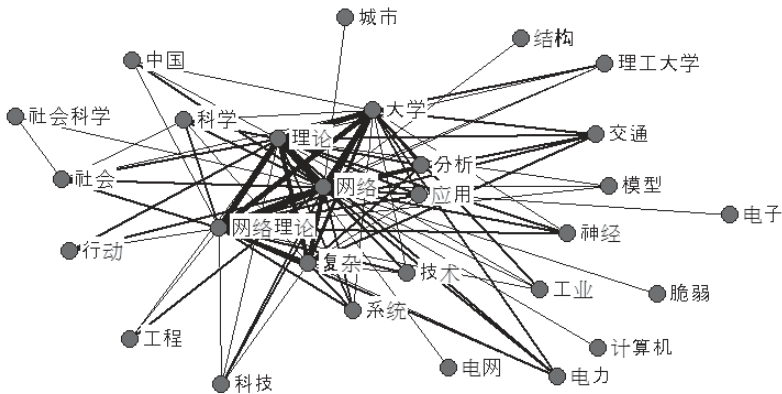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정작 동아시아의 주요 구성 국가들에서 네트워크 이론과 관련하여 어떤 연구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현실을 반영한 네트워크 이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초보적이거나 본 서평의 필자가 동아시아의 주요 구성 국가 이면서 우리의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학계에서 네트워크 이론과 관련해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논문 검색 엔진인 《CNKI》에서 학술지를 대상으로 “网络理论”을 제목에 포함하고 있는 논문을 검색해 보니 모두 1,584건이

검색했다. 이 중 상관도를 기준으로 상위 700위 안에 들어간 논문들의 제목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해 보니 다음과 같은 의미 네트워크가 그려졌다.

〈그림 2〉 중국에서의 “网络理论” 관련 논문 제목에 대한 의미 네트워크



〈출처: 본 서평을 쓴 필자가 직접 작성〉

이렇게 만들어진 의미 네트워크를 통해 간단히 살펴본 결과, 중국 학계에서도 꾸준히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이론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 2000년 이후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고, 최근에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가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의 의미 네트워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교통이나 도시, 공업 등과 관련한 영역에서 네트워크 이론이 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학계에서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 국회도서관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ネットワーク理論”을 키워드로 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 봤다. 결과, 관련 서적이 30권, 기사 및 논문이 153건 검색

됐는데, 이들 자료들의 제목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해 보니 다음의 〈그림 3〉과 같은 의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그림 3〉 일본에서의 “ネットワーク理論” 관련 논문 제목에 대한 의미 네트워크



〈출처: 본 서평을 쓴 필자가 직접 작성〉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만 많은 양의 논문이 검색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최근 들어 관련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역시 교통과 금융, 경제 등의 분야에서 네트워크 이론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네트워크 이론 중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자주 이용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참고를 위해 간단히 조사해 본 결과라서 정밀한 해석을 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동아시아 주변국가에서의 네트워크 이론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찰이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특수이론을 더욱 정교히 만들어 나가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상배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네트워크 세계정치 이론이 더욱 정교화 될 수 있도록 본 필자도 더욱 다양한 경험 연구에 힘써야겠다는 책임 의식이 든다.